

益安大君 發願 紺紙銀字 『妙法蓮華經』 卷6의 書誌的 分析

Bibliographical Analysis of the Wish's 'Ig-andaegun' at
Written in Silver on Dark-blue Paper *Lotus Sutra* Vol. 6

남 권 희 (Nam, Kwon Hee)*

석 해 영 (Suk, Hae-Y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妙法蓮華經』 卷6의 양식 분석 |
| 2. 형태와 구성체재 | 3.1 發願文 |
| 2.1 형태사항 | 3.2 양식적 특징 |
| 2.2 구성 및 내용 | 4. 맺음말 |
| 2.3 本文의 對校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새로 발견된 紺紙銀泥 『妙法蓮華經』 卷6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紺紙銀泥 『妙法蓮華經』 卷5(德2466)를 비교 고찰한 것이다.

해당 寫經의 發願文을 통해 우리는 益安大君이 太宗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여실히 확인함과 동시에, 上王을 비롯한 왕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여러 차례 寫經을 제작한 점 등은 조선 왕실내부에서도 功德을 위한 寫成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경의 제작 시기는 추가로 발견된 史料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상정해 볼 때 1400~1404년에 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表紙畫는 高麗末 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연잎의 모양이나 굵은 唐草줄기 등의 표현이 圖式化되어가는 부분에서 朝鮮時代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花心에서 뿔어져 나오는 향기의 방향이 일직선으로 변화하는 등 硬直化된 표현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變相畫에 있어서는 조선조 如來의 光背 紋樣의 특징(즉, 火焰紋에 휩싸여 있으나 頭光에는 장식이 없다는 점) 및 須彌壇의 계단에 散花를 표시하는 紋樣이 보인다는 점, 여래의 寶蓋가 작게 표현된 것 또한 해당시기에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書體에 있어서는 歐陽詢體를 기본으로 하되, 麗末鮮初 유행한 趙孟頫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다양한 書者만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경들은 현재 발원 연대가 없어, 양식만으로 고려말기의 사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른 사경들의 양식분석과 시기추정에 기초가 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要語: 寫經, 高麗, 朝鮮, 益安大君, 妙法蓮華經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shy7694@hanmail.net)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10월 31일 최초심사일: 2018년 12월 2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5일
서지학연구, 제76집, 79-104,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79]

<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newly discovered [Written in Silver on Dark-Blue Paper, Painted in Gold ‘紺紙銀字’] *Lotus Sutra* (妙法蓮華經) 卷6 and with the Currently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otus Sutra* 卷5 (德2466), which is now stor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rom the source (發願文) of the written script, we have been able to confirm how close ‘Ig-an dae-gun (益安大君)’ was with ‘Tae-jong (太宗)’,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the royal family created the scriptures for peace and well-being, It can be seen that the royal court of Joseon also placed great importance on supporting the king. Furthermore, the timing of the production can be viewed as being made between 1400 and 1404, based on newly discovered data.

Although the cover art (表紙畫) is influenced by the style of Goryeo Dynasty later perio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Jo-seon Dynasty can be seen where lotus leaves and stems are drawn. Moreover, the scent coming from the flower’s heart changes in a straight line, and the rigid expression begins to stand out.

In the of the paintings (變相畫), there is a characteristic of the light backs of Cho-sun beginning period (that is, they are surrounded by fire patterns, but there is no decoration in the head light) and the sign that displays the scattered flowers on the stairs of ‘Su-mi-dan (須彌壇)’, What is expressed is also the form that appears at that time.

In the style of font (書體), Basically it was affected by the ‘Gu-yang-sun font (歐陽詢體)’ and added the font of ‘Jo-maeng-bu Font (趙孟頫體)’. However, a variety of calligraphy styles are emerging.

Key words: Manuscript(寫經), Ko-ryo dynasty(高麗), Jo-seon Dynasty(朝鮮),
Ig-an dae-gun(益安大君), Lotus Sutra(妙法蓮華經)

1. 머리말

고려사경의 경우는 『高麗史』나 『高麗史節要』를 비롯한 다양한 史料에서 왕실발원 寫經 및 寫經院, 寫經僧 등 관련 기록이 다수 남아있으며, 국보·보물로 지정된 유물도 상당량 현존하고 있다. 최근 각 사찰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등에 대한 전시회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소개되는 등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¹⁾ 이러한 사경들 중에는 아직 국보·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우수한 자료가 남아 있으며, 고려사경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제작된 사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²⁾

조선 초기에 제작된 사경들은 앞선 시대에 제작된 고려사경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서체나 표지화·변상화 등에서 고려사경 못지않게 수준 높은 조선사경만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 해주는 작례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인 『妙法蓮華經』 卷5(德2466)가 있으며, 이와 동일한 양식으로 파악되는 개인소장 『妙法蓮華經』 卷6 寫經이 새로 발견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서지적 분석을 위해 위의 두 자료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들 두 사경은 발원문, 표지화, 변상화의 형식이 매우 흡사하며, 서로 간의 양식 분석을 바탕으로 비교·고찰해 본 결과 사성시기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소개된 『妙法蓮華經』 卷5의 경우 紺紙에 金·銀泥로 그려진 표지화의 寶相華紋이나 감지에 금니로 그려진 변상화, 그리고 감지에 銀字로 쓰인 經文의 서체 등이 고려사경의 양식을 따르는 듯 하나, 발원문에 의해 조선시대 사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사경의 발원문은 조선 초 왕실 상황과 불교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본고에서는 이전 선행된 연구에서의 시기추정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그 사성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 1) 강순애,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국립중앙박물관, 『사경 변상도의 세계-부처 그리고 마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해인사,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서원』 (합천: 海印寺 聖寶博物館, 2008).
 국립대구박물관,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복장』 (대구: 국립대구박물관, 2013).
 국립중앙박물관,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불교미술의 후원자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5).
 불교중앙박물관 2018년 특별기획전시회(2/6~5/31) 『붓다의 탄생-불복장』.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 원당』 (합천: 海印寺 聖寶博物館, 2017).
 2) 김보형, “韋馱天 圖像 研究: 高麗·朝鮮時代 寫經畫와 木版畫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김중민, “麗末 鮮初 寫經書體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김중민, “朝鮮時代 寫經 研究,”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정향자, “朝鮮時代 觀音經典의 寫經製作에 관한 研究: 『佛頂心陀羅尼經』·『觀世音菩薩普門品』·『千手經』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5).
 김중민, “일본에 유존하는 한국 불교미술에 관한 고찰: 寫經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36(2010).
 장충식, “朝鮮時代 寫經考,” 『美術史學研究』 204(1994).

2. 형태와 구성체재

2.1 형태사항

개인소장 『妙法蓮華經』 卷6은 鳩摩羅什이 漢譯한 『妙法蓮華經』을 底本으로 하여 紺紙에 銀泥로 寫成된 것이다.

책의 형태는 零本 1책의 折帖本으로 卷首의 變相畫를 포함하여 전체 張數는 24장이고 본문은 1折 6行 17字로 되어있으며 5절이 1장(마지막 장 동일)을 이룬다. 罽寫된 上下雙邊과 界線 그리고 권수의 變相畫는 金泥로 되어있고, 본문의 글씨는 銀泥로 쓰여져 있다. 책의 전체 크기는 세로 35.0cm, 가로 11.9cm이며, 匡高는 20.9cm며, 이외에 표지 서명의 크기와 變상화 및 紙幅 크기, 그리고 종이의 두께와 색차 값 등 형태서지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형태서지의 개요

크기(cm)		색차 값		종이두께(mm)	
표지 서명	15.5×4.0	앞표지	L32.3 a+0.1 b-0.5	앞표지	0.62
變상화 크기	22.8×46.9	앞표지 금니	L59.9 a+7.1 b+31.2	뒤표지	0.42
變상화 제목	17.6×3.0	앞표지 은니	L56.2 a+2.7 b+13.7	본문	0.21
變상화 테두리 폭	1.2	變상화 종이	L32.4 a-2.8 b-9.5	變상화면	0.27
1장 크기	17.6×39.1	變상화 금니	L68.8 a+6.5 b+32.2		
紙高	34.9	본문 종이	L26.8 a+1.3 b-10.4		
紙幅	59.0	본문 글자(은니)	L57.4 a-0.3 b+2.8		

앞 표지화의 형식을 보면 테두리는 태선과 태선 사이에 세선-당초문양-세선이 금니로 그려져 있고 아울러 4층이의 연화(금니)와 연화를 둘러싸고 있는 당초문양이 은니로 그려져 있다. 한편 표제부분을 보면 장방형(세선-태선-세선)의 테두리 안에 開法藏眞言인 ‘옴 아라남 아라다 ; 鶴立蛇橫’ 아래로 표제서명인 ‘妙法蓮華經卷第六’이 금니로 쓰여 있다. 표제 윗부분에는 금니의 覆蓮形 寶蓋가 두 개의 태선에 의해 삼등분되어 있다. 이러한 앞 표지화의 형식은 1415년(太宗 15)에 사성된 來蘇寺 소장의 『妙法蓮華經』 7卷本과 흡사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감지금니 사경인 『妙法蓮華經』 卷5(德2466)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 해당 자료인 卷6은 제18품부터 제23품의 내용을 은니로 썼으며,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사경의 서체와 동일하여 기본적으로 歐陽詢體를 따르고 있으나 趙孟頫의 松雪體가 함께 보인다.

권수면에는 卷6의 내용을 도상화한 變相畫가 4절에 걸쳐 금니로 그려져 있다. 變상화의 테두리는 외곽부터 내곽으로 태선-세선-金剛杵-세선-태선-세선으로 되어 있는데, 三鈷杵 형태인 금강저는 양쪽 鈷의 뒷부분이 중앙의 손잡이 쪽으로 뒤로 젖혀진 듯 모여 있다.

변상화의 구성을 좌우로 나누어 보면 우측에는 변상화 제목(妙法蓮華經第六卷 變相)이 개범장진 언 표시와 함께 장방형의 구획선(세선-태선-세선-태선) 안에 금니로 筆書되어 있고, 須彌壇에는 本尊佛과 釋迦眷屬 그리고 聽聞者 등을 그려 설법하는 장면을 나타내었다. 본존불의 光背 표현에서 頭光은 특별한 장식이 없고 身光은 火焰紋이 가득하며 白毫光을 통해 여러 전각이 나타나고 있다. 변상화의 좌측에는 卷6의 각 품별 내용을 도상화 시킨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변상화에 이어서 권수제와 저자사항 그리고 卷6의 제18품부터 제23품의 내용이 은니로 筆書되어 있다. 권수제는 ‘妙法蓮華經卷第六’이고 저자사항은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다.³⁾

卷6의 마지막 품인 제23품의 내용이 끝난 권말에 본 사경의 사성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發願文이 기록되어 있다. 발원문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2 구성 및 내용

『妙法蓮華經』은 『法華經』이라 약칭되고, 이 경전의 원서명은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saddharma-pundarika-sutra)”로 그 의미는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華嚴經』·『金剛經』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다. 해당 경명이 나타내는 의미는 天台大師 智顗의 해석에 의하면, 즉 ‘一乘의 가르침은 가장 뛰어난 교법으로 그것은 말로써 직접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세간에 있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인 연꽃, 그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흰 연꽃에 비유함으로써 그 지상의 우위성을 표방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6차례에 걸쳐 번역되었지만, 현존하는 것은 法護가 286년에 번역한 『正法華經』 10卷 27品과 鳩摩羅什이 406년에 번역한 『妙法蓮華經』 7卷 28品, 그리고 隋의 闍那崛多와 達摩笈多가 601년에 공역한 『添品法華經』 7권 27품의 3종에 불과하다. 이 중 鳩摩羅什의 것이 탁월한 문학성으로도 유명하며 가장 널리 유포되었다.⁴⁾

이 경전의 서술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靈鷲山에서 釋尊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聖衆들의 존재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다음, 석존에 의해 法問이 시작된다. 이어서 석존은 풍부한 譬喩와 因緣說話들을 예로 들어 보충 설명되고, 제자 석존과 보살, 제자 등이 등장인물들에 의해 偈頌으로 찬탄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설법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된 譬喩談과 因緣說話 등이 變相版畫의 주요 주제로 묘사된다.

3) 再雕大藏經에는 ‘妙法蓮華經卷第六 鳴’과 ‘後秦龜茲國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으로 확인된다.

4) 鳩摩羅什(344~413)은 인도 출신의 승려 鳩摩羅炎과 龜茲國王의 누이동생 지바(jiva)를 어머니로 하여 龜茲國에서 태어났다. 9세 때 어머니와 함께 罽賓國에 가서 槃頭達多에게 초기 경전을 배우고, 구자국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疏勒國에서 阿毘達磨의 여러 논서와 경전을 배웠다. 그는 『成實論』, 『十誦律』, 『大品般若經』, 『妙法蓮華經』, 『阿彌陀經』, 『中論』, 『十住毘婆沙論』 등 경전 74부 380여 권을 펴냈다. 오늘날 韓·中·日 三國에서는 그를 三論宗의 祖師로 부르고 있으며 413년 장안의 大寺에서 69세로 열반에 들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는 판본은 대부분 宋의 溫陵 開元蓮寺의 比丘 戒環이 1127년 찬술한 『妙法蓮華經』 7卷本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다지 성행하지 않았던 계환의 『妙法蓮華經要解』가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것은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 꼽히기도 한다.⁵⁾

鳩摩羅什 漢譯의 『妙法蓮華經』은 전체 7권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별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卷1 : 「序品」·「方便品」

卷2 : 「譬喻品」·「信解品」

卷3 : 「藥草喻品」·「授記品」·「化成喻品」

卷4 : 「五百弟子受記品」·「授學無學人記品」·「法師品」·「見寶塔品」·「提婆達多品」·「勸持品」

卷5 : 「安樂行品」·「從地踊出品」·「如來壽量品」·「分別功德品」

卷6 : 「隨喜功德品」·「法師功德品」·「常不輕菩薩品」·「如來神力品」·「囑累品」·「藥王菩薩本事品」

卷7 : 「妙音菩薩品」·「觀世音菩薩普門品」·「陀羅尼品」·「妙莊嚴王本事品」·「普賢菩薩勸發品」

2.3 本文의 對校

해당사경의 체제는 1行 17字의 형식으로 大藏經의 기본형식인 1行 14字本과는 대조가 불가능하다. 이에 중국의 磧砂藏에 속한 鳩摩羅什 漢譯의 『妙法蓮華經』 卷6과 본문을 대조해 본 결과, 약간의 通用 異體字 및 誤字가 발견되었으며, 偈頌 중 缺落된 行이 확인되었다.

底本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磧砂藏本의 경우 1行 17字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몇몇의 글자 아래에 小字雙行으로 音釋을 함께 새겨둔 경우가 있어, 해당하는 행은 14字~16字 등으로 변화가 보이기도 하며, 1行이 18字인 부분도 1곳 확인된다. 그러나 본 사경의 경우는 저본의 본문에 표시된 音釋의 표시는 생략하고 行字數에 연연하지 않고 1行 17字의 형식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조 과정 중 해당 사경에서는 磧砂藏本 卷6 第19張 11行에 해당하는 ‘供養於世尊 爲求無上慧’ 5言 偈頌 2句 1行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러 수정을 하려고 한 흔적 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배껴 쓰는 경전’이라는 寫經의 특수성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通用 異體字로 확인된 글자들 중에는 ‘瑠’→‘琉’, ‘抹’→‘末’, ‘彌’→‘弥’, ‘蓋’→‘盖’ 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成’→‘盛’, ‘遶’→‘繞’, ‘瞻’→‘詹’ 등이 나타난다.

5) 박도화,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43. 각주 6) 재인용.

3. 『妙法蓮華經』 卷6의 양식 분석

3.1 發願文

[발원문]

施主/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功臣益安大君 芳毅/

同 室 貞惠翁主 崔氏



<그림 1> 『妙法蓮華經』 卷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 『妙法蓮華經』 卷6, 개인소장

발원문에 사성된 시기를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은 ‘정난·정사공신인 익안대군 방의와 왕실의 정혜옹주, (익안대군의 부인인)최씨가 시주하여 이 사경을 발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발원문에 등장한 인물들 중 ‘益安大君’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태조의 셋째 아들인 李芳毅

(1360~1404)로 고려조에서는 공양왕 때 判密直司事를 지냈고, 태조를 도와 開國功臣에 冊錄되었다. 또한 定安大君 李芳遠(1367~1422)이 주도한 ‘왕자의 난’에서 定安大君의 편에 섰던 인물로 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인정받아 1398년(太祖 7)에 定社功臣이 되었다.⁶⁾ 이후 1400년(定宗 2)에 일어난 태조의 넷째 아들 芳幹(?~1421)이 일으킨 2차 ‘왕자의 난’에서도 정안대군의 편에 섰던 인물이다.⁷⁾ 후일 太宗(李芳遠)과는 극진한 형제의 우의를 유지하였으며, 1404년 익안대군이 죽은 뒤 태종은 그에게 ‘安襄’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다음으로 貞惠翁主(?~1424)는 태종의 총애를 받던 貞懿宮主⁸⁾ 懿嬪 權氏의 딸로서 1419년(世宗 1) 朴從愚(?~1464)에게 출가한 뒤 1424년(世宗 6)에 죽었다.⁹⁾ 또한 익안대군의 부인인 崔氏(三韓國大夫人 貞慶翁主)의 본관은 철원이고 贊成事로 追贈된 崔仁珩의 딸인 것으로 확인된다.¹⁰⁾

먼저 공신 칭호가 있는 조선 초 寫成된 또 다른 사경의 발원문 중 익안대군과 관련이 있는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소장의 1408년(太宗 8)경에 사성된 감지은니 『妙法蓮華經』 卷5 寫經斷簡이 있다. 여기에는 「如來壽量品」의 권말 일부와 발원문만이 남아 있다. 이 사경에서도 익안대군과 정혜옹주, 그리고 최씨에 관한 기록이 동시에 보이고 있으며¹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지은니 『妙法蓮華經』 卷5(德2466) 또한 발원문이 있으며 각각 ‘定社功臣益安大君芳毅 竊荷 …’

- 6) 『太祖實錄』 14권(태종 7, 1398) 8월 26일(己巳).
『太祖實錄』 14권(태종 7, 1398) 9월 17일(己丑).
- 7) 『定宗實錄』 3권(정종 2, 1400) 1월 28일(甲午).
- 8) 『太宗實錄』 3권(태종 2, 1402) 4월 18일(庚午).
『太宗實錄』 3권(태종 2, 1402) 8월 13일(甲子).
『太宗實錄』 18권(태종 9, 1409) 10월 21일(己未).
『太宗實錄』 35권(태종 18, 1418) 1월 5일(丙辰).
- 9) 『世宗實錄』 3권(세종 1, 1419) 1월 22일(丁卯).
『世宗實錄』 3권(세종 1, 1419) 1월 24일(己巳).
『世宗實錄』 15권(세종 4, 1422) 2월 20일(丁未).
『世宗實錄』 26권(세종 6, 1424) 10월 6일(丁未).
- 10) 『太宗實錄』 17권(9년, 1409) 윤4월 13일(乙卯).
- 11) 定社功臣益安大君芳毅 竊荷
 祖宗毓慶之蔭早[] 鼎食
 恩庇罔極恩所以憑茲
 覺皇慈援圓報其萬一端祝
太上王殿下壽養濟天
神懿王后在天之靈躋攀樂階
上王殿下永與大妃長亨五福
主上殿下負屨億萬春秋
靖妃殿下椒蘭衍慶金枝永茂
元子千秋宗室康寧臣忠子孝國治民
樂次願已躬并同室貞惠翁主崔氏兼
及一家日子日女現增壽福當生樂卿
敬捨淨脂鎖銀染楮勝寫連經用以流
通續佛慈令轉利無窮俱悅三界若疆

와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功臣益安大君 芳毅’로 확인된다.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소장본에서는 익안대군의 공신 칭호가 ‘定社功臣’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성된 시기를 추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경우는 ‘靖難定社功臣’으로 되어 있어 이를 ‘推忠協贊靖難開國定社功臣(1398년 왕자의 난을 평정해서 사직을 바로 잡은 공)’의 약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453년(端宗 1) 때 내려진 ‘奮忠仗義匡國輔祚定策靖亂功臣’ 칭호가¹²⁾ 추증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靖難定社功臣’이라는 칭호와 익안대군 및 정혜옹주의 생몰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경의 사성 사성연대가 세조대(1453년 이후)인 것으로 기술하였다. ‘靖難’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 사경이 정난공신의 책봉이 있는 후에 제작된 사경인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발원문에서 ‘정난’이라는 기록이 ‘開國’과 ‘定社’의 사이에 표시된 점이 의문점으로 남는다. ‘靖難’이라 함은 首陽大君에 의해 安平大君 · 金宗瑞 · 皇甫仁 등이 제거되던 1453년(端宗 1) 靖難 때의 공신이라는 뜻으로, 이때는 익안대군(1404년) 및 정혜옹주(1424년)가 죽은 이후로, 살아있을 때와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에 정혜옹주의 생모인 의빈 권씨가 소생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하고, 정혜옹주의 남편인 박종우 등이 당시 막강한 권세를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사경의 사성을 위해 직 · 간접적으로 시주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³⁾

그러나 이러한 추정과 달리 해당 사경의 사성 시기는 다른 사료들을 통해, 세조 때 제작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직접적으로 實錄에 ‘靖難定社功臣 益安大君’이라고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익안대군과 동일하게 책훈된 다른 공신들의 예가 실록에 남아있으며, ‘靖難定社功臣’이라는 칭호가 언급된 이들은 모두 1398년 ‘왕자의 난’과 관련된 ‘推忠協贊靖難開國定社功臣’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

『太祖實錄』 14권(태조 7, 1398년) 9월 17일에¹⁵⁾

‘임금이 우리 전하와 더불어 정사공신의 등급을 논하고 도승지李文和에게 명하여 교지를 전하였는데 … 李芳毅, 李芳幹, 李芳遠, 趙浚, … (중략) 奉寧侯 複根, 李之蘭 등은 성심을 써서 보좌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키고 종사를 편하게 하였으니 …’

와 같이 정사공신 28명의 이름이 확인된다.

12) 『端宗實錄』 8권(단종 1, 1453) 10월 17일(庚子); 世祖가 端宗의 보좌세력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鄭麟趾 · 韓確 등 모두 43명을 녹훈하였다.

13) 권희경, “조선초 익안대군 발원 사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 no.2(2001).

14) 2007년 ‘사경변상도의 세계-부처 그리고 마음’(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도록의 해제자료 및 최근 발표된 광동화, “조선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8)에서도 이 사경의 사성시기를 1400년~1404년으로 추정하였다.

15) 『太祖實錄』 14권(태조 7, 1398) 9월 17일(己丑).

『太宗實錄』 9권(태종 5, 1405년) 6월 27일에¹⁶⁾

‘… 무인년(1398) 가을에 갑자기 변(變,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임금이 밤에 朴苞(?~1400)를 보내어 趙浚(1346~1405)을 부르고, 또 스스로 길에 나와서 맞았다.浚이 이르러 百官을 거느리고 箋을 올려 嫡長子를世子로 삼을 것을 청하니, 태상왕이 이를 가하다고 하여, 9월에 上王이 內禪을 받았다. 이에 功 1等を 기록하고, 인하여 左政丞을 제수하고 靖難定社功臣의 이름을 더하고 …’

라는 기록을 통해서 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趙浚에게 ‘靖難定社功臣’이란 칭호가 하사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1차 ‘왕자의 난’에서 조준 이외에도 ‘推忠協贊靖亂定社功臣’을 제수받은 사람으로 李福根을 들 수 있다.

『太宗實錄』 34권(태종 17, 1417년) 9월 12일에¹⁷⁾

‘福根을 推忠協贊靖亂定社功臣輔國奉寧府院君으로 삼았다.’

라는 내용이나

『世宗實錄』 14권(세종 3, 1421년) 11월 3일¹⁸⁾ 기사

‘奉寧府院君 李福根¹⁹⁾이 졸하였다. … 태상왕이 宗社를 안정시킬 때에, 복근이 자못 공이 있었으므로 推忠協贊靖亂定社功臣으로 策勳한다. …’

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正祖實錄』 27권(정조 13, 1789년) 2월 16일²⁰⁾ 기사에서는

‘鎮安大君(李芳雨)의 묘를 수축하고 御製碑를 세웠다. 幼學 李國柱가 상언하기를, … 대군의 諱는 李芳雨이고 태조 대왕의 장남이다. … 아들은 李福根 하나를 두었는데, 정종조(1398~1400) 때 靖難定社功臣에 기록되었다.’

는 기록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日省錄』 正祖 10년 丙午(1786, 乾隆) 9월 28일(戊戌)²¹⁾의 기록에 誠正閣에서 益安大君의 奉祀孫 李齊白이 소견한 부분을 참고해보면,

16) 『太宗實錄』 9권(태종 5, 1405) 6월 27일(辛卯).

17) 『太宗實錄』 34권(태종 17, 1417) 9월 12일(甲子).

18) 『世宗實錄』 14권(세종 3, 1421) 11월 3일(壬戌).

19)太祖의 첫째 아들인 鎮安大君 李芳雨의 첫째 아들.

20) 『正祖實錄』 27권(정조 13, 1789) 2월 16일(癸卯).

21) 『日省錄』 正祖 10년 丙午(1786, 乾隆) 9월 28일(戊戌).

‘또 하교하기를, “익안대군은 國初에 宗室의 영웅으로서 定宗朝・太宗朝와 同氣이다. 開國의 元勳이 되어 純忠奮義佐命의 錄券을 받았고, 또 定社功臣 1등으로 기록되어 推忠協贊靖難의 錄券을 받았으며, 資級이 大匡輔國大夫로 追贈되었고, 列朝에 이르러 여러 번 융숭한 褒賞이 더해졌으니, ...’

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익안대군 또한 ‘推忠協贊靖難’의 錄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료를 바탕으로 할 때 익안대군과 태종과의 관계, 실록과 사료에 나타난 용례들 즉, 1차 ‘왕자의 난’ 때에 공신으로 추대되었던 조준에게도 ‘靖亂定社功臣’의 이름이 더해졌었고, 이복근 역시 ‘靖亂定社功臣’에 책훈된 사실을 참고해 본다면, 본 자료의 ‘靖難定社功臣’ 칭호는 1398년 ‘왕자의 난’을 평정한 뒤 책훈된 공신 칭호의 약칭임과 동시에 2차 ‘왕자의 난’(1400년) 이후 追贈된 녹권이 함께 하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사경이 사성된 시기는 1400년 이후부터 익안대군이 죽은 시점인 1404년 사이라 할 수 있다.

3.2 양식적 특징

3.2.1 表紙畫

卷6 사경의 앞 표지화를 살펴보면 테두리는 태선과 태선사이에 세선-당초문양-세선이 금니로 그려져 있고 아울러 4송이의 연화(금니)와 연화를 둘러싸고 있는 당초문양이 은니로 그려져 있다. 한편 표제부분을 보면 테두리는 장방형(세선-태선-세선)으로 그 안에 開法藏眞言인 ‘옴 아라남 아라다 ; 鶴立蛇橫’ 아래로 표제서명인 ‘妙法蓮華經卷第六’이 금니로 쓰여 있다. 표제 윗부분에는 금니의 覆蓮形 寶蓋가 두 개의 태선에 의해 삼등분되어 있다. 표지화의 전체적인 윤곽선이 굵고 둔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인 卷5의 표지화와 거의 흡사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화는 금니로, 연화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당초문양의 줄기는 금니를 사용하였으며, 당초잎은 은니로 그리고 있다. 표제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의 윤곽선은 양쪽 금니세선 사이에 굵은 태선을 넣은 점, 표제 위쪽에 寶蓋처럼 덮고 있는 覆蓮 장식들은 고려말기 제작된 사경과 유사하게 도식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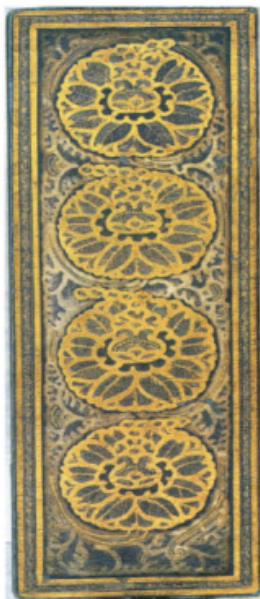
해당 사경에 나타난 조선시대 특징으로는 굵고 둔한 태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둔한 태선으로 연당초문의 윤곽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연화와 당초문 사이의 공간이 마치 바탕색인 감색으로 윤곽선이 그려진 듯 한 느낌을 주는 점, 또한 線描의 경직화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제 위쪽에 그려진 복련형 보개의 가운데를 굵은 2줄의 태선을 그어 삼등분한 점, 보개의 꼭지부분과 外班된 화판의 은니 태점 장식, 화판과 화심의 모양에서 당시의 양식적인 특징이 잘 나타난다.



<그림 3> 卷5 앞 표지화



<그림 4> 卷6 앞 표지화



<그림 5> 卷5 뒷 표지화



<그림 6> 卷6 뒷 표지화

연판(연꽃의 큰 꽃잎)의 경우 중앙 葉脈을 중심으로 그 끝이 2등분 된 것, 화판이나 화심의 내부를 세선으로 채우고 있는 점 등도 조선초 사경의 양식적 특징이라 하겠다.

<표 2> 『妙法蓮華經』 卷5와 卷6 앞표지의 세부 표현 비교

卷5			
	가장자리 문양대 확대	화심 · 보개 확대	표제 아랫부분 양면 확대
卷6			
	가장자리 문양대 확대	화심 · 보개 확대	표제 아랫부분 양면 확대

卷6 표지화의 연화 역시 화심과 화판, 향기의 표현이 卷5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며, 표제 위의 보개에 장식된 은니 태점은 더욱 또렷하게 묘사되어 있어 주목된다. 화심의 꽃수술의 경우는 고려시대 양식을 따라 2중 점열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앞 표지화의 형식은 함께 살펴보았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妙法蓮華經』 卷5(德2466)와 그 표현이 거의 동일하다.

두 자료의 표지화에 나타난 화심은 타원형으로 위쪽은 트여 있다. 연화의 화판은 화심을 중심으로 좌우로 3층 화판이 감싸고 있으며, 화심 위쪽은 2층 화판이 3개 그려져 있다. 화심은 ‘山’字形으로 그려지며, 심방 위로는 원형의 향기가 一字로 퍼져나가는데, 앞표지에는 표제 윗부분 있는 연화 1송이에만 나타난다. 뒷 표지부분의 경우도 4송이의 연화모습이나, 연당초줄기 등이 매우 유사하다. 단, 향기가 퍼져나가는 방향이 卷5의 경우는 1번째, 4번째 송이가 오른쪽으로, 2번째, 3번째 송이의 것은 왼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나 卷6의 연화는 1번째 송이를 시작으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가며 퍼져나가는 모습을 묘사한 점이 다르다.

3.2.2 變相畫

두 자료의 권수에 위치한 變相畫는 4절에 걸쳐 금니로 그려져 있다. 변상화의 테두리는 외곽에서 내곽으로 태선-세선-金剛杵-세선-태선-세선으로 되어 있는데, 三鈷杵 형태인 金剛杵는 양쪽 鈷의 끝이 중앙으로 모여진 형태라고 앞서 잠시 언급하였다. 변상화의 화면구성을 좌우로 나누어 보면 우측에는 변상화 제목(妙法蓮華經第六卷 變相)이 開法藏眞言 표시와 함께 장방형의 구획선(세선-태선-세선-태선) 안에 금니로 筆書되어 있고, 須彌壇에는 본존불과 釋迦眷屬 그리고 請文者 등을 그려 설법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본존불의 光背표현에서 頭光은 별다른 표현이 없고 身光은 火焰紋이 가득 하며 白毫光을 통해 여러 전각이 나타나고 있다. 변상화의 좌측에는 卷6의 각 품별 내용을 도상화 시킨 장면이 표현되어져 있다.



<그림 7> 『妙法蓮華經』 卷6, 1160, 중국 국가도서관(NLC) 소장



<그림 8> 『妙法蓮華經』 卷6, 12세기, 경주 기림사 소장

려말선초에 조성된 대부분의 『妙法蓮華經』, 특히 사경변상화의 경우는 南宋代 板本(중국 국가도서관 소장본은 1160년)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그 영향관계가 분명하다. 현재 기림사에 소장된 『妙法蓮華經』 卷6의 변상판화는 고려시대의 것으로는 유일하게 사경변상화의 양식적 底本으로 현전하는 자료로, 說法圖 및 經典의 내용을 그린 도상이 이후 제작된 사경변상화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 『妙法蓮華經』 변상화 등이 宋代 版畫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妙法蓮華經』 卷5 變相畫,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10> 『妙法蓮華經』 卷6 變相畫, 개인소장

卷6은 제18 隨喜功德品, 제19 法師功德品, 제20 常不輕菩薩品, 제21 如來神力品, 제22 囑累品, 제23 藥王菩薩本事品の 내용을 함께 포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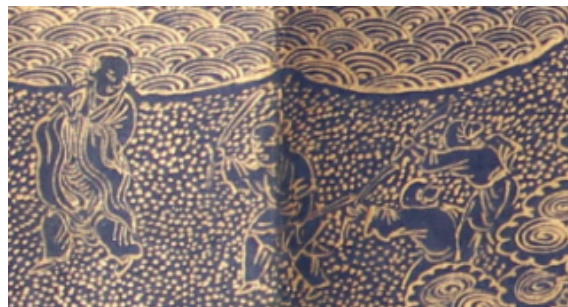
석가설법도 부분은 아난과 가섭, 4位の 사천왕과 8位の 보살이 석가 주변에 자리하고, 請法衆은

3名の比丘과 4位の 보살로 표현된다.²²⁾ 또한 석가의 白毫로부터 뻗어 나온 한 줄기의 광명에는 6동의 집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如來神力品』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²³⁾, ‘모든 털구멍으로는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는 문구와 상통하며, 시방세계가 집모양의 건축물처럼 묘사되고 있다.

화면 가운데 露臺 위로는 『隨喜功德品』²⁴⁾의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 隨喜란 ‘남이 하는 일을 보고 기쁜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妙法蓮華經』을 따라 읽고 수지했을 때의 공덕을 강조한 것이다. 화면 좌측 세로로 『妙法蓮華經』을 독경하고 수지하여 남들에게 설법을 하는 공덕에 관한 내용이 높은 의좌에 앉은 2名の 인물이 세로로 세워져있고, 그 앞으로 각각 3名の 경청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다른 『妙法蓮華經』 卷6의 도상 중에는 화면 왼쪽 상단에 ‘… (중략)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위하여 승방에 가서 앉거나 서서 잠깐이라도 들으면, 像車 혹은 馬車를 타고 천궁에 오르리라’와 같은 내용이 그려지는데, 해당 사경에는 이례적으로 그 표현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각 품의 주요 내용이 화면 여러 곳에 흩어져 표현될 경우, 중심을 이루는 도상의 표현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²⁵⁾



<그림 11> 수희공덕품 장면



<그림 12> 상불경보살품 장면

- 22) 문선회는 그의 논문(“高麗時代《妙法蓮華經》寫經變相圖 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5))에서 제6권이 대부분 보살에게 설법하고 성불을 약속하는 등 보살 중심의 품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법중의 대부분이 比丘로 표현된 것에 대해 ‘제6권 자체가 경전의 수지와 유포를 강조하기 때문에 허구적 존재인 보살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이 비구라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 23) 동국역경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http://kabc.dongguk.edu/Home/Search>) 고려대장경 K0116 『妙法蓮華經』.
“爾時世尊於文殊師利等無量百千萬億舊住娑婆世界菩薩摩訶薩 及諸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天用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一切衆前 現大神力出廣長舌上至梵世 一切毛孔放於無量無數色光皆悉遍照十方世界 衆寶樹下師子座上諸佛亦復如是 出光長舌放無量光.”
- 24) 고려대장경 K0116 『妙法蓮華經』.
“佛告彌勒 我今分明語汝 是人以一切樂具 施於四百萬億阿僧祇世界六趣衆生 又令得阿羅漢果 所得功德 不如是第五十人 聞法華經一偈隨喜功德 百分千分百千萬億分不及其一 乃至算數譬喻所不能知 阿逸多 如是第五十人展轉聞法華經隨喜功德 尚無量無邊阿僧祇 何況最初於會中聞而隨喜者 須臾聽受 緣是功德轉身所生 得好上妙象馬車乘珍寶輦及乘天宮 若復有人 於講法處坐 更有人來 勸令坐聽 若分座令坐 是人功德轉身 得帝釋坐處 若梵王坐處 若轉輪聖王所坐之處.”
- 25) 이와 같은 작례로 日本 東北大學圖書館 所藏 『妙法蓮華經』 卷6의 變相畫를 들 수 있으며, 여기서도 위의 장면이 생략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두 가지 장면 사이에 『常不輕菩薩品』의 상불경보살에 관한 내용 중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혹은 막대기나 기와 또는 돌로 때리면 멀리 피해 달아나며,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경만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그대들은 모두 다 성불하리라.’ 라는 부분의 장면이 묘사된 것으로 보인다. 뒤돌아보는 僧形 인물 뒤로 막대기와 돌을 든 3名の 인물이 쫓아가는 모습이다.²⁶⁾



<그림 13> 약왕보살본사품 장면



<그림 14> 법사공덕품 장면

마지막으로 좌측하단에는 『藥王菩薩本事品』의 스토리가 2가지 장면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약왕보살의 전신인 喜見菩薩이 자신을 두 번 불태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로 화면 좌측 하단에 자리한 2基의 탑과 1位の 보살표현을 살펴보면, 이는 희견보살이 삼매에 이르러 자신의 몸을 불사른 장면과, 일월정명덕불이 멸도 한 후 사리를 안치시켜 공양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는 사리탑의 장엄공양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어서 두 팔을 불태워 焚身供養하는 내용이 표현된다. 화면에 휩싸인 보살 1位와 옆으로 대좌위에 跏趺坐한 일월정명덕불로 보여 지는 여래상이 나타난다.²⁷⁾

화면 중간 수미단 왼쪽 위에는 연화좌 위에 가부좌한 인물과 그 인물을 경배하는 듯한 3名の 인물이 표현되는데(<그림 14> 참조), 이 부분은 2개의 내용이 겹쳐지는 것처럼 보여 명확하게 어떤 품의 내용이 묘사된 것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 하나는 희견보살이 분신공양 후 화생하여 일월정명덕불의 국토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삼매에 든 사실과 부처에게 공양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으

26) 고려대장경 K0116 『妙法蓮華經』.

“而是比丘 不專讀誦經典 但行禮拜 乃至遠見四衆 亦復故往禮拜讚歎而作是言 我不敢輕於汝等 汝等皆當作佛 四衆之中 有生瞋恚心不淨者 惡口罵詈言 是無智比丘 從何所來自言我不輕汝而與我等授記當得作佛 我等不用如是虛妄授記 如此經歷多年常被罵詈 不生瞋恚常作是言 汝當作佛 說是語時 衆人惑或以杖木瓦石而打擲之 避走遠住 猶高聲唱言 我不敢輕於汝等 汝等皆當作佛.”

27) 고려대장경 K0116 『妙法蓮華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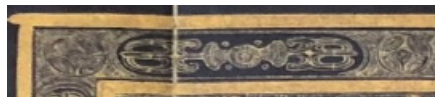
“爾時一切衆生喜見菩薩 見佛滅度悲感懷惱戀慕於佛 卽以海此岸栴檀爲 供養佛身 而以燒之 火滅已後 收取舍利 作八萬四千寶瓶 以起八萬四千塔 高三世界 表刹莊嚴 垂諸幡蓋懸衆寶鈴 爾時一切衆生喜見菩薩 復自念言 我雖作是供養心猶未足 我今當更供養舍利 便語諸菩薩大弟子 及天龍夜叉等一切大衆 汝等當一心念 我今供養日月淨明德佛舍利 作是語已 卽於八萬四千塔前 然百福莊嚴臂 七萬二千歲而以供養 令無數求聲聞衆無量阿僧祇人發阿『多羅 三藐三菩提心 皆使得住現一切色身三昧 爾施諸菩薩天人阿修羅等 見其無臂憂惱悲哀 而作是言 此一切衆生喜見菩薩 是我等師 教化我者 而今燒臂身不具足.”

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때 높은 관을 쓰고 있는 인물은 아버지일 것이며, 나머지 인물들은 시주자일 것으로 추정된다.²⁸⁾

한편 이 장면의 또 다른 해석으로는, 다른 사경들에서는 『法師功德品』의 내용이 위치한 자리로 ‘사경을 베껴 쓰고 읽는 행위 등에 대한 보상으로 신체의 건강함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묘사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잘 표현된 것 같지 않아 확인하기 힘들다.

또한 법화경 중 가장 짧은 품인 『囑累品』은 해당 변상화에는 생략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사경변상화들에서는 여래가 보살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²⁹⁾

<표 3> 『妙法蓮華經』 卷5와 卷6 變相圖의 부분 비교



卷5의 가장자리문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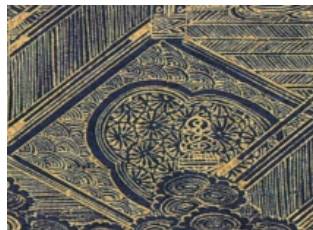
卷6의 가장자리문양대



卷5의 지운문



卷6의 지운문



卷5의 수미단 계단 표현



卷6의 수미단 계단 표현



卷5의 석가권속도 및 보타의 주렴장식



卷6의 석가권속도 및 보타의 주렴장식

28) 고려대장경 K0116 『妙法蓮華經』.

“過是已後其身乃盡 一切衆生喜見菩薩 作如是法供養已 命終之後 復生日月淨明德佛國中 於淨德王家 結跏趺坐忽然化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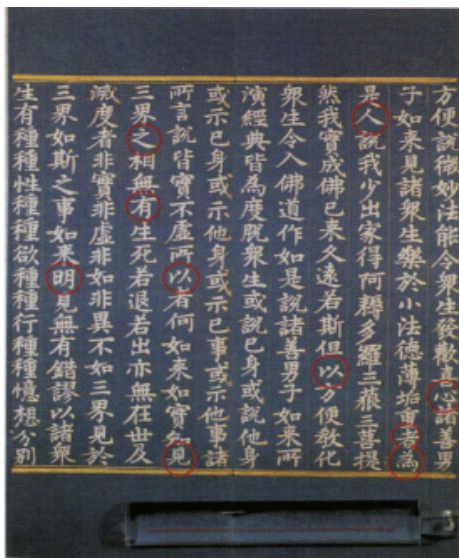
29) 문선희(2005), 76 및 각주 178) 참조.

변상화에서 卷5 및 卷6의 釋迦說法圖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계단 중앙에 散花를 상징하는 꽃들이 그려지고 나머지 부분이 雲紋으로 채워지는 형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설법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 여래의 光背를 들 수 있다. 頭光은 가장자리만 윤곽선으로 처리하고, 身光은 두광의 가장자리 장식과 거의 같은 양식으로 그려진 윤곽선 안에 波狀線이 가득 채워져 있다. 두광과 신광의 둘레는 火焰이 타오르는 듯이 표현된 점도 특징이다. 여래 뒤쪽으로 운문이 그려지고 운문 위쪽으로 반광의 波狀紋을 細筆로 그렸다. 雲紋과 地運紋은 3개의 동심원문 혹은 渦紋을 ‘山’字로 쌓아 꽃 모양과 같은 윤곽선을 두고 2중으로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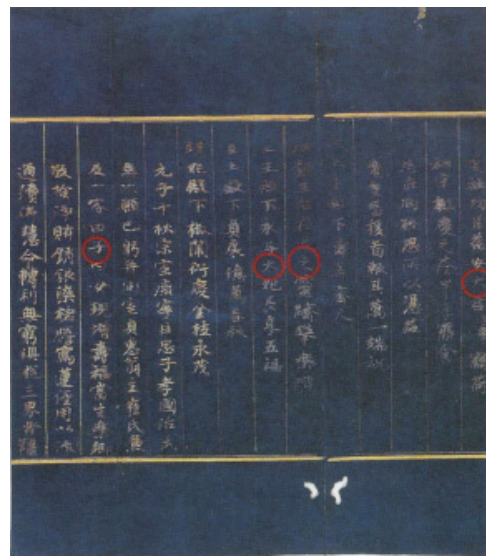
한편, 寶蓋의 크기가 작게 그려진 것도 조선 초 변상화에서 보여 지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寶鐸에는 위로 2단의 드리개(垂飾) 장식이 나타나며, 보타의 장막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려진 장식은 중앙은 짧고 옆으로는 길게 늘어난 형상이다. 보타 위에는 香爐를 중심으로 양쪽에 공양물이 놓인 碗이 그려져 있는데 겹쳐 그리기로 연출되었다.

변상화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형상은 바탕에 여백이 없이 금니선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직선을 능숙하게 긋고 있는 점, 곡선에서 보여 지는 도식적이면서도 경직된 묘사는 조선초 제작된 사경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말기 사경변상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2.3 書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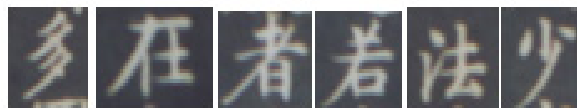
<그림 15> 卷5 본문 서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16> 卷5 사경단간 서체,
일본 경도국립박물관 소장

功德을 중시하는 사경은 빼껴 쓰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통성이 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베껴 쓰는 書者의 ‘書’에 대한 개인적인 이념이나 豪氣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요건 중 하나로 여겨진다. 고려의 사경에서 그 書法이 歐陽詢의 楷書로 쓰여 진 이래 그 전통은 지속적으로 고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강조하였듯이 高麗大藏經의 서체가 歐陽詢體였다는 사실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그림 17> 卷5(국박 소장) 본문 송설체자



<그림 18> 卷5(일본 소장) 발원문 송설체자

그러나 忠肅王 이후에는 萬卷堂을 통해 유입된 본격적인 松雪體의 유입과 더불어 虞世南, 褚遂良, 顏真卿의 서체도 함께 유입되었을 것이다.³⁰⁾ 이러한 특징은 楷書의 名筆들이 갖는 개인적인 豪氣와 관계가 있으나, 일부 사경에 한정된다는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러말선초 사경의 서체가 송설체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그 세력을 굳혀가고 있을 때에도 구양순체의 틀을 완벽하게 깨지 못한 것은 역시 사경이 ‘베껴 쓰는 경전’이라는 전통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³¹⁾



<그림 19> 卷6 본문에서 확인되는 송설체자, 개인소장

30) 牟夏禮 等 著, 畢斐 譯, 『書法與古籍』(杭州: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10), 103-108.

31) 손환일, 『고려 말 조선조 조맹부체』(서울: 학연문화사, 2009), 13-43.



<그림 20> 卷6 글자서체 세부 字形, 개인소장



<그림 21> 卷6 書者만의 특징적인 字形, 개인소장

익안대군 발원의 일본 소장『妙法蓮華經』卷5의 발원문 서체에는 송설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字形들이 다수 발견된다.³²⁾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妙法蓮華經』卷5 사경의 서체를 보면 구양순체와 魯公體³³⁾, 송설체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고려사경의 기본서체라고 할 수 있는 구양순체는 드물게 사용되는 대신 자형이 노공체에 가깝고 혹은 송설체가 많이 가미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구와 자형이 노공체의 특징을 보이는 글자로는 ‘相’, ‘無’, ‘家’字 등이며 掠劃(빠침)과 趯劃(갈고리)이 강조되어 쓰여진 글자는 거의 송설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多’, ‘者’, ‘少’, ‘在’, ‘身’, ‘法’字 등이 좋은 예이다.³⁴⁾ 이에 대해 김종민은 ‘해당 시기를 풍미하고 있던 송설체가 크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경의 기본서체라고 할 수 있는 구양순체가 많이 사라진 것은 寫經院 출신의 書者가 아닌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사경의 書者는 앞에서 언급한 구양순체, 노공체, 송설체 등을 모두 익힌 수준 높은 書者일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사경에서 개인적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쓴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본 논고에서 살펴본『妙法蓮華經』卷6의 본문에서 확인되는 송설체로는 ‘名’, ‘妙’, ‘第’, ‘在’, ‘者’ 등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妙’字와 ‘第’字에서는 조선초 사경서체의 양식적 특징이 보여진다. 조선초 사경에서 구양순체 속에서 도드라진 송설체의 글자를 찾으라고 한다면, 단연 ‘妙’字에 側點이 ‘ノ’획 바깥쪽으로 찍힌다는 점, ‘第’字에서 ‘弓’자의 제3획의 堅劃이 點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해당 사경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쓰여진 서체 중 書者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滿’, ‘經’, ‘分’, ‘寫’, ‘然’字로 확인된다.

32) 김종민, “朝鮮時代 寫經 研究,”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81.

33) 顏真卿[(709년~784년(혹은 785년)]의 서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는 趙孟頫, 柳公權, 歐陽詢과 더불어 楷書四大家로 일컬어진다.

34) 김종민, “麗末 鮮初 寫經書體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46.

35) 김종민(2003), 46.

4. 맺음말

감지은니『妙法蓮華經』卷6은 1400~1404년 사이에 사성된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감지은니『妙法蓮華經』卷5(德2466)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경은 조선초 송유역불 정책이 강조되는 시기에 왕실 내부에서 발원하여 사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제작년도가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발원문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사경표지화 및 변상화가 잘 유존되고 있어 연대가 불확실한 다른 사경들의 양식과 제작시기를 파악하는데 기준점을 마련해 줄 만한 귀중한 자료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 사경의 발원문을 통해 益安大君이 太宗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여실히 확인함과 동시에, 上王을 비롯한 왕실의 안녕을 위해 여러 차례 사경을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왕실내부에서도 功德을 위한 寫成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당 사경의 제작시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료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상정해 볼 때 1400~1404년에 사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表紙畫는 고려말 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연잎의 모양이나 굵은 당초줄기 등의 표현이 도식화되어가는 부분에서 조선시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화심에서 뿔어져 나오는 향기의 방향이 일직선으로 변화하는 등 경직화된 표현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變相畫에 있어서는 조선초 여래의 광배 문양의 특징(즉, 火焰紋에 휩싸여있으나 頭光은 장식이 없다는 점) 및 須彌壇의 계단에 散花를 표시하는 문양이 보인다는 점, 여래의 寶蓋가 작게 표현되는 것 또한 해당시기에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書體에 있어서는 歐陽詢體를 기본으로 하되, 려말선초 유행한 松雪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다양한 書者만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이 사경들은 현재 발원 연대가 없어, 양식만으로 고려말기의 사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많은 사경들의 양식분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原典]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單行本]

권희경. 『고려의 사경』. 서울: 글고운, 2006.

국립중앙박물관. 『사경변상도의 세계-부처 그리고 마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김경호. 『한국의 사경』. 서울: 골륜, 2006.

장충식. 『한국사경의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손환일. 『고려 말 조선초 조맹부체』. 서울: 학연문화사, 2009.

牟夏礼 等 著, 畢斐 譯. 『書法与古籍』. 杭州: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10.

[學位論文]

곽동화. “조선전기 왕실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8.

김보형. “韋駄天 圖像 研究: 高麗・朝鮮時代 寫經書와 木版書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김종민. “麗末 鮮初 寫經書體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김종민. “朝鮮時代 寫經 研究.”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문선희. “高麗時代 《妙法蓮華經》 寫經變相圖 研究.”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5.

박도화.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정향자. “朝鮮時代 觀音經典의 寫經製作에 관한 研究: 『佛頂心陀羅尼經』・『觀世音菩薩普門品』・『千手經』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5.

[研究論文]

권희경. “조선초 익안대군 발원 사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 no.2(2001).

김종민. “일본에 유존하는 한국 불교미술에 관한 고찰: 寫經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36(2010).

장충식. “朝鮮時代 寫經考.” 『美術史學研究』 204(1994).

[부록 1] 국내 소장 『묘법연화경』 사경의 현황

권차	사성시기[고려]	변상	형태-재질	소장처 및 비교
7권본 완질	1330년(충숙왕 17)		절첩본-감지은니	국보 제234호 삼성리움미술관
권7	1366년(공민왕 15)		절첩본-감지금니	보물 제1138호
7권본 완질	1373년(공민왕 22)		절첩본-상지은니	국보 제185호 국립중앙박물관
7권본 완질	1377년(우왕 3)	○	절첩본-백지묵서	국보 제211호 호림박물관
권3/5/7	1385년(우왕 11)	○	절첩본-백지묵서	국립중앙박물관 (덕2468/2469/2470)
권7	1386년(우왕 12)		절첩본-백지묵서	보물 제352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권6	1388년(우왕 14)		절첩본-감지금니	보물 제270호 국립중앙박물관
권1/3	1389년(공양왕 원년)	○	절첩본-백지묵서	보물 제315호 광흥사
7권본 완질	[충렬왕대]:엄승익발원	○	권자본-감지은니	국립중앙박물관
권6	[충숙/충숙왕 복위연간]		절첩본-감지은니	삼성리움미술관
권2/3/4/7	[공민왕대]	○	절첩본-감지은니	광덕사
권3/4	[공민왕대]		절첩본-취지금니	광흥사
권2	[고려후기]		절첩본-백지묵서	보물 제1095호 봉림사 목조아미타불
권3	[공양왕-조선 초]	○	절첩본-감지금니	영남대학교박물관
권3	[공양왕-조선 초]		절첩본-감지은니	국립중앙박물관(본5053)
권4	[공양왕-조선 초]	○	절첩본-상지은니	동국대학교박물관
권4	[14세기 후반]	○	절첩본-상지은니	불교중앙박물관
권5~6	[14세기]		절첩본-상지은니	보물 제976호 개인소장

권차	사성시기[조선]	변상	형태-재질	소장처 및 비고
권7	1405년(태종 5)	○	절첩본-백지묵서	보물 제1139호 국립중앙박물관
7권본 완결	1415년(태종 15)		절첩본-백지묵서	보물 제278호, 내소사소장, 국립전주박물관 기탁
권1/7	1422년(세종 4)	○	절첩본-감지은니	보물 제269호, 제270호 마곡사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기탁
권2/4/5/6		○	절첩본-감지은니	보물 제390호, 광덕사소장, 불교중앙박물관
권3		○	절첩본-감지은니	동아대학교박물관
권2/3/5	1458년(세조 4)		절첩본-감지은니	국보 제282-2-6호 흑석사 목조아미타불
권2	1458년(세조 4)	○	절첩본-백지묵서	국보 제282-2-5호 흑석사 목조아미타불
권5	[1400-1404]	○	절첩본-감지금니	국립중앙박물관(덕2466)
권6	[1400-1404]	○	절첩본-감지은자	개인소장
권4 단간	[1408]]		절첩본-백지금니	통도사 성보박물관
권6 단간	[15세기]		절첩본-백지묵서	쌍계사 성보박물관
권4	[15세기]	○	절첩본-감지금니	국립중앙박물관(덕2222)
권6	[15세기]	○	절첩본-백지금니	국립중앙박물관(덕2240)
권3	[15세기]	○	절첩본-감지은니	국립중앙박물관(본5053)
권1/3/5/6/7	[15세기]	○	절첩본-백지묵서	광덕사
권2	[15세기]		절첩본-백지묵서	보물 제1095 용주사 성보박물관
권2	[조선전기]		절첩본-감지은니	보물 제959호 기림사 목조비로자나불
권6	[조선전기]		절첩본-감지금니	보물 제959호 기림사 목조비로자나불
묘법년화경(한글본)	1626년(인조 4)		선장본-백지묵서	원효사
1절(14책)	1880년(고종 17)		선장본-금니(紺紬)	경남유형 제97호 통도사 성보박물관

[부록 2] 국외 소장 『묘법연화경』 사경의 현황

권차	사성시기[고려]	변상	형태-재질	소장처 및 비교
권1	1294년(충렬왕 20)	○	절첩본-감지은니	일본 宝積寺
권5	1311년(충선왕 3)		권자본-감지금니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7권본 완질	1312년(충선왕 4)	○	절첩본-감지금니	일본 正法寺
7권본(6책, 권2缺)	1315년(충숙왕 2)	○	절첩본-감지금니	일본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7권본 완질	1325년(충숙왕 12)		절첩본-감지은니	일본 羽賀寺
권1/2	1334년	○	절첩본-감지금니	일본 海長寺
권7	1339년	○	절첩본-감지금니	일본 妙顯寺
권6	1345년(충목왕 원년)	○	절첩본-백지묵서	일본 鏡神社
7권본 완질	1353년(공민왕 2)	○	절첩본-감지은니	일본 根津美術館
권7 미서단간	1373년(공민왕 22)		절첩본-백지금니	일본 개인소장
권4	[공민왕대 후기]		권자본-감지은니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권6	[14세기]	○	절첩본-백지금니	일본 東北大學圖書館
권4	[14세기]	○	절첩본-감지은니	일본 東北大學圖書館
권3	[14세기]	○	절첩본-백지금자	일본 萬徳院
권4	[14세기]		절첩본-감지은니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권6	[우왕대 이후]	○	절첩본-백지금니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8권본 완질	1081	○	권자본-감지금니	일본 金剛峰寺
8권본 완질	1332년(충숙왕 복위년)	○	절첩본-감지은니	일본 鍋島報効會
8권본(7책)	1340	○	절첩본-감지금니	일본 徳川黎明會

권차	사성시기[조선]	변상	형태-재질	소장처 및 비교
권5 단간	[1408]		절첩본-감지은니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권2 단간	[1408]		절첩본-백지금니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권1	[15세기]	○	절첩본-상지은니	일본 京都大學圖書館